

# 奎章閣 소장 『爾雅』 관련 서적 현황 및 특징 연구\*

신원철\*\*

- 
1. 서론
  2. 규장각 소장 『爾雅』 관련 서적 현황
    - 1) 현황 파악
    - 2) 입수 시기 및 유통 내역
  3. 판본 비교 및 특징 검토
  4. 결론
-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奎章閣에서 소장중인 『爾雅』의 판본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입수 경위와 유통 내역을 살핀 후 판본간의 상이점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규장각에서 『이아』 관련 서적의 현황을 살펴본 후, 검색된 14종의 『이아』를 분석하였다. 발간 연도 및 인장을 통해 선후 관계를 파악한바, 이 중 『爾雅正義』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아』 입수 시기는 高宗 전후이다. 『爾雅註疏』, 『爾雅音義』, 『爾雅正義』, 『爾雅義疏』를 중심으로 판본 비교 및 특징 검토를 하였고, 누락된 해제를 보충하였다. 연구를 통해 규장각에 소장된 『爾雅』는 조선 말기, 즉 1800년대 후반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이 논문은 2017년 12월 1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한국경학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후 토론 등에서 지적을 받고 수정한 것이다.

\*\*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HK+사업단 HK조교수/ E-mail: chimsky@paran.com

**주제어:** 규장각, 『이아』, 『이아주소』, 『이아음의』, 『이아정의』, 『이아의소』, 고종

## 1. 서론

본 논문은 규장각에서 소장중인 『爾雅』의 다양한 판본의 현황을 파악, 이들의 입수 경위와 유통 내역을 살피고 판본 내의 상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아』는 十三經에 속하는 경전이지만 그 성격은 기타 경전들과 상이하다.<sup>1)</sup> 간략히 기술하자면 『이아』는 『詩』에서 나타난 동의어를 중심으로 모아 놓은 어휘집이다. 그 외에도 기타 경전의 훈고를 모아 놓은 어휘집으로 볼 수 있다.<sup>2)</sup> 이와 같이 『이아』는 경전을 이해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爾雅·釋親』 이후로는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역할을 하면서 名物訓詁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아』는 일찍이 한반도에서 수입되어 읽힌 것으로 파악된다.<sup>3)</sup> 특히 실질적인 예로서 조선시대 『이아』에 대한 취급이 어떠한지

---

1) 이에 대해서는 신원철(2014), pp.31-35에서 설명하였다. 그 중 13경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렇지만 이 책이 經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이 다른 경에서 그 용례가 나타나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즉 《이아》를 통해서 경에서 쓰이는 어휘가 어떠한 뜻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어 경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지금 그 글을 살펴보건대 대체로 여러 책에서 訓詁와 名物の 같고 다름을 모아 견문을 넓혔으니, 실로 스스로 하나의 서적이 되어서, 경전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다만 경전을 설명하는 학자들이 옛날의 뜻을 증명하는 데 참고하였으므로, 그 중요한 것을 따라 경부(經部)에 나열했을 뿐이다.”(今觀其文, 大抵采諸書訓詁名物之同異, 以廣見聞, 實自爲一書, 不附經義.……特說經之家多資以證古義, 故從其所重, 列之經部耳.) 『四庫全書總目提要』小學類·『爾雅注疏』. 그렇지만 『爾雅』를 사전으로 보기에는 검색 등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과 중복 기술이 많은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어휘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이에 대해서는 노용필(2010), pp.1-30과 黃卓明(2016), pp.45-49의 목차를 참조

지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명물에 대해 확인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세종 때에 『이아』의 활용이 활발하였다.<sup>4)</sup> 이 중에 특히 주목할 항목으로는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1901년) 9월 23일 “金台濟가 경서의 주석을 교정할 것을 청하다” 조이다.

근래에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처음부터 따지지도 않은 채 모두 말살하고 十三經까지 포함하여 무슨 책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許氏의 『說文解字』와 『爾雅』는 모두 小學家 一門에서 함께 점유하는 만큼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마땅히 먼저 익혀야 하는데도 지금 묶어서 시렁 위에 올려놓고 보지 않습니다. 아! 구설과 『설문해자』는 朱子도 많이 인용하였으니, 선현들이 폐하지 않은 것을 後儒들이 폐해서야 되겠습니까?<sup>5)</sup>

挽近東儒，初不考其是與非而都付抹殺，竝與十三經目而不知爲何書。且許氏『說文』、與『爾雅』，共占小學家一門，則讀書者，所當先習，而今乃束閣而不之觀。嗚呼！舊說與『說文』，朱夫子亦多引用，則先賢之所不廢，後儒廢之可乎？

위에서 十三經과 『說文解字』, 『이아』 등 소학류의 서적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소 덕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종 시기에 여러 『이아』 서적이 수집되고 있었다. 이처럼 『이아』에 대한 활용과 취급이 활발했고 중시

할 것.

4) 『爾雅』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총 17차례 인용되었다. 그 중 세종 때에 9차례 인용되었기에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악기에 대한 고증이나 설명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文獻通考』와 『樂書』에서의 재인용이 각각 3회, 4회이다. 즉 『이아』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것이라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아』에 대한 직접 인용이 2회 있으니 문헌적 검토가 전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5)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809023\\_003](http://sillok.history.go.kr/id/kza_13809023_003)에서 인용(접속일: 2021.01.11.)

여겼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활발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이아』, 특히 국내에 소장된 『이아』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竇秀艷 등(2010)과 黃卓明(2016) 등이 있다. 그렇지만 竇秀艷 등(2010)에서는 郭璞의 『爾雅注』만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면모를 확인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리고 黃卓明(2016)에서는 다른 문헌에서 등장하는 『이아』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기 때문에 제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이 이전 연구에서는 범위가 축소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규장각에 소장된 『이아』를 살펴봄으로써 『이아』에 대한 연구의 공백을 보충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연구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규장각에 소장된 『이아』의 다양한 판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 사이에 중복된 서적이거나 관계, 간행 연도 등을 분석할 것이다. 이후 한국에 입수된 연도와 입수 경위 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판본 상의 비교와 각각의 특징을 언급할 것이다.

## 2. 규장각 소장 『爾雅』 관련 서적 현황

본 장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된 『이아』와 관련한 서적에 대한 현황과 그 입수 및 유통 경위 등을 밝히고자 한다.

### 1) 현황 파악

규장각에서는 소장 도서에 대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웹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sup>6)</sup> 이를 통하여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아』 관련 서적을 검색하였다. 이러한 검색을 통해 총 14권의 『이아』 관련 서적이 검색되었다. 이들을 [표 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서명	청구기호	번호	서명	청구기호
1	『爾雅正義』	奎中 3366의1-v.1-7	8	『爾雅漢注』	奎中 3603-v.1-3
2	『爾雅釋文』	奎中 3366의2	9	『爾雅補郭』	奎中 5681
3	『爾雅正文直音』	奎中 3367-v.1-2	10	『爾雅義疏』	奎中 6337-v.1-4, 奎中 6338-v.1-4
4	『爾雅蒙求』	奎中 3369-v.1-2	11	『爾雅音義』	海士 중 158
5	『爾雅』	奎中 3370-v.1-4	12	『爾雅正義』	海士 중 159-v.1-8
6	『爾雅註疏』	奎中 3371-v.1-6, 一簑蓑古 495.13-G994y-v. 1-6	13	『爾雅註疏』	海士 중 160-v.1-2
7	『爾雅義疏』	奎中 3586-v.1-8	14	『爾雅補釋』	古 039.51-W184i

[표 1] 규장각 소장 『이아』 관련 서적 목록

[표 1]은 규장각 소장 『이아』 관련 서적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이다. 순서는 검색에서 등장한 순서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중 ‘一簑蓑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도 ‘一簑古’의 오류로 一簑 方鍾鉉(1905-1952)의 기증품이다. 11, 12, 13에 나온 海士 중은 모두 2015년 11월 20일에 해군사관학교에서 규장각으로 기증한 책임을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 순서로 번호를 부여할 것으로, 동일한 서명일 경우는 번호를 붙여서 구분하고자 한다. 특히 명칭이 동일한 『爾雅正義』,

6) <https://kyudb.snu.ac.kr/> 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접속일: 2021.01.11.)

『爾雅註疏』와 『爾雅義疏』에 대해서는 각각 지금 부여한 번호를 통해 판본을 구별하고자 한다. 우선 이들 서적 간의 영향 관계를 통한 선후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점은 이후 발간연도, 입수 및 유통 경위를 이야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아』는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전 내에 속하지만 어휘를 파악하는 데에 사용된 일종의 어휘집이다. 이에 대한 현존하는 최초의 주석은 쑤 나라 郭璞의 주석이다. 위에 보이는 『爾雅釋文』(이 책과 11번의 『이아음의』는 같은 책이다.)은 唐 나라 陸元朗<sup>7)</sup> 『經典釋文』의 일부분으로서 郭璞의 주석본에 음과 의미를 붙인 것이다. 이후 宋 나라 邢昺이 郭璞의 주석본을 토대로 疏를 작성하였다. 이것이 이후 『十三經注疏』에 포함되었다. 淸나라 때에는 소학의 발달로 『이아』 관련 서적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邵晉涵의 『이아정의』와 郝懿行的 『이아의소』를 들 수 있다. 이 두 서적은 『이아』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서적이다.<sup>8)</sup> 그리고 『爾雅蒙求』, 『爾雅漢注』, 『爾雅正文直音』 등이 『이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행되었다. 또한 학의행의 『이아의소』를 보충하기 위해 『爾雅補郭』이 발간되었다. 즉 요약하자면 淸나라 때 이전에는 郭璞의 『이아』 주석을 기반으로 『釋文』, 『注疏』가 등장하였다면 淸나라 때 이후로는 다양한 서적이 나타났다. 이들 사이에는 발행 연도를 통해 선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淸나라 때 이후 발간된 것으로는 『이아정의』, 『이아몽구』, 『이아정문직음』, 『이아의소』, 『이아한주』, 『이아보곽』 등이 있으며, 이들 사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아정의』는 乾隆 53년(1788)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7) 字가 德明이다. 일반적으로는 자인 陸德明)으로 유명하다.

8) 『이아정의』에 대해서는 胡奇光 저, 이재석 역(1997), pp.398-399 참조. 『이아의소』에 대해서는 같은 책, p.417 참조.

아몽구』는 嘉慶 3년(1798), 『이아한주』는 가경 7년(1802), 『이아의 소』는 道光 6년(1826), 『이아보곽』은 光緒 18년(1892)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서문이나 발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이아정문직음』의 경우 그 성서 시기를 유추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 이유로는 성서 시기에 대한 드러난 정보가 없고 저자인 孫儒<sup>9)</sup>에 대한 행장(行狀)도 자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아정문직음』의 경우 그 성서 시기와 관련한 정보로는 현재 소장하고 있는 판본에 기록된 同治 9년(1870)만이 확실하다. 民國 25년(1936) 序가 포함된 『爾雅補釋』은 이는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에 구매된 서적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서명	성서시기
2, 11	『爾雅釋文』(=『爾雅音義』)	隋 陸元朗(德明)
5	『爾雅』	郭璞注·陸德明音義
6, 13	『爾雅註疏』	宋 邢昺疏
1, 12	『爾雅正義』	乾隆53年(1788)
4	『爾雅蒙求』	嘉慶3年(1798)
8	『爾雅英注』	嘉慶7年(1802)
7, 10	『爾雅義疏』	道光6年(1826)
3	『爾雅正文直音』	同治9年(1870)?
9	『爾雅補郭』	光緒18年(1892) 跋
14	『爾雅補釋』	民國25年(1936) 序

〔표 2〕 규장각 소장 『爾雅』 관련 서적 성서 연도별 순서 (위에서 아래로)

이와 같은 성서 연도별 순서를 근거로 하여 각 서적의 입수 시기 및

9) 규장각의 해제에서는 이를 '품'으로 발음하고 있으나 이 자는 '侃'과 같은 글자로 '간'으로 발음한다.

유통 내역 등을 검토하는 밑천으로 삼고자 한다. 최소한 책은 발간되어야 입수할 수 있고, 발간은 책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 2) 입수 시기 및 유통 내역

입수 시기는 발간연도와 도장 등을 통해서 유추해보도록 하겠다. 서지사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발간연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서명	발간연도	번호	서명	발간연도
1	『爾雅正義』	乾隆53年(1788)	8	『爾雅漢注』	光緒13年(1887)
2	『爾雅釋文』	미상(청관본 추정)	9	『爾雅補郭』	(光緒18年(1892) 跋)
3	『爾雅正文直音』	同治9年(1870)	10	『爾雅義疏』	光緒14年(1888)
4	『爾雅蒙求』	嘉慶3年(1798)	11	『爾雅音義』	未詳
5	『爾雅』	光緒9年(1883)	12	『爾雅正義』	乾隆53(1788)
6	『爾雅註疏』	光緒8年(1882)	13	『爾雅註疏』	同治13(1874)
7	『爾雅義疏』	光緒10年(1884) 跋	14	『爾雅補釋』	民國25年(1936) 序

(표 3) 규장각 소장 『爾雅』 관련 서적 발간 연도

앞에서 언급한 청나라 때 이전에 성립된 책도 여기에서는 모두 청나라 때에 발간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측되었다. 즉 여기에서 확인되는 바에 의거하면 규장각 소장 『이아』 관련 서적은 청나라 이후, 즉 조선으로서는 후반기에 수집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조 5년(1781) 편찬된 『奎章總目』에서는 전체 목록 중 小學類에 『이아』 항목이 없다. 그 점에 근거하면 현재 규장각에 존재하는 『이아』는 이 이후에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 나열된 발간 시기 등을

보면 특히 光緒(1874-1908) 시기에 집중적으로 서적이 발간되었다. 그렇다면 한국과 시기적으로 겹치는 高宗(1863-1897, 대한제국: 1987-1907) 시기 이후 이러한 서적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속에서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集玉齋 도장의 유무이다. 집옥재는 고종의 서재로 알려져 있다.<sup>10)</sup> 집옥재 印章과 이후 帝室圖書之章이 함께 있다는 것은 즉 고종 이전 또는 고종 때 수집되어 일제 강점기 시절 때 존재가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도장의 유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번호	서명	印記	번호	서명	印記
1	『爾雅正義』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8	『爾雅漢注』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2	『爾雅釋文』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9	『爾雅補郭』	集玉齋
3	『爾雅正文直音』	.	10	『爾雅義疏』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4	『爾雅蒙求』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11	『爾雅音義』	.
5	『爾雅』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12	『爾雅正義』	.
6	『爾雅註疏』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13	『爾雅註疏』	.
7	『爾雅義疏』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14	『爾雅補釋』	張一麿

(표 4) 규장각 소장 『이아』 관련 서적 인장 정보

10) 고종의 서재 集玉齋에 대한 정보는 조선왕조실록사전을 참조하였다([http://waks.aks.ac.kr/rsh/dir/rview.aspx?rshID=AKS-2013-CKD-1240001&callType=srch&dataID=AKS-2013-CKD-1240001\\_DIC@00008987](http://waks.aks.ac.kr/rsh/dir/rview.aspx?rshID=AKS-2013-CKD-1240001&callType=srch&dataID=AKS-2013-CKD-1240001_DIC@00008987))(접속일: 2021.01.11.) 이는 청 건륭제의 서재인 삼희당(三希堂)과 같은 관계이다. 참고로 건륭제의 시호도 고종(高宗)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야정문직음』은 출간년도 외에는 확인될 길이 없다. 아무래도 이후 규장각으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11, 12, 13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해군사관학교에서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집옥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14. 『이야보석』에 있는 張一麐은 중국 民國 시기 활동하던 사람이라는 점 이상의 정보를 알아낼 수 없었다.<sup>11)</sup>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소결을 내릴 수 있다. 규장각 내에는 총 14권의 『이야』 관련 서적이 있다. 이 중 중복되는 서적은 『이야정의』, 『이야주소』와 『이야의소』, 그리고 이름은 다르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는 『이야석문』(『이야음의』)이 있다. 발간 시기는 대부분 청나라 때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 책은 모두 ‘집옥재’와 ‘제실도서지장’이 나란히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조선 고종 때에 이미 그 존재가 확인이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각각의 서적과 관련한 판본을 비교하고 해당 판본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3. 판본 비교 및 특징 검토

『이야』 관련 서적에 대해서는 규장각에서 손민정<sup>12)</sup>의 자세한 해제가 붙어 있다. 이 장에서는 손민정의 해제와 직접 관찰한 바를 통해서 논의

11) 인장상에 기록된 ‘張一麐’이라는 명칭은 趙林鳳(2014), p.69에 원화(元和, 지금의 蘇州 부근이다.) 사람으로 <소학회(蘇學會)에 참여한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름이 유사한 중국의 혁명가 張一麐(1867-1943)은 동일한 고향 사람으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형제인지 동일 인물인지 등은 파악할 수 없다.

12) 손민정은 2004년 『『爾雅』의 語彙意味論의 研究』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고자 한다.

비교할 판본으로는 같은 제목으로 있는 『이아주소』, 『이아음의』(=『이아석문』), 『이아정의』, 『이아의소』 등을 위주로하고자 한다. 특히 『이아음의』, 『이아주소』, 『이아정의』는 모두 2015년 11월 20일에 해군사관학교에서 규장각으로 기증한 책이다. 이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사항이다.

우선 『이아주소』부터 보도록 하겠다.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이아주소』는 곽박의 주와 형병의 소가 하나로 합쳐진 습본이다. 지금 통행하고 있는 『십삼경주소』 본과의 차이점으로는 육원량의 音義, 즉 釋文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 판본은 해제에 의하면 汲古閣原本으로서 崇德書院藏板이고 光緒 壬午年(1882) 겨울에 주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汲古閣은 명말 毛晉이 설립한 장서고이다. 이 책은 청대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이아정의』와 『이아의소』가 나오기 전까지 『이아』의 善本으로서 애용된 서적이다. 이후 “十三經注疏本에 실림으로써 『이아』 주석본 중 가장 널리 유통된 판본이 되었다.”고 해제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십삼경주소본에 실린 『이아』는 『이아석문』이 포함된 것으로 현재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형태와는 다른 것이다. 해제의 설명을 이해하려면 註疏에 기록된 내용이 곽박과 형병의 것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아음의』와 『이아석문』은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서적이다. 모두 육원량의 『경전석문』 중에서 『이아』 부분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 책은 『이아』에서 音義를 설명할 부분의 구절만을 따와서 그에 대해 해설을 하였기 때문에 『이아』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후 『이아주소』 등에 합쳐서 유통되었다. 『이아정문직음』이나 『이아몽구』는 모두 이 책에서 착안하여 나온 것으로, 『이아』에 수록된 글자의 음과 의

미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서적이다.

『이야정의』에는 손민정의 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외의 서적에는 대부분 해제가 존재했던 것에 비해 이 부분의 해제가 누락된 것은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수로 빠진 것이 아닌가 한다. 해제를 대신하여 대략의 사항을 기록하고자 한다.<sup>13)</sup>

邵晉涵(1743-1796)은 자가 與桐 또는 二雲이고 호는 南江으로 절강 성 餘姚 출신이다. 송대 형병의 『爾雅疏』가 비교적 상세하지 못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광박의 『爾雅注』를 근본으로 삼아 『爾雅正義』 20권을 저술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6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오탈자를 교정하였다. 둘째, 이전의 주석을 널리 채용하였다. 셋째, 광박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였다. 넷째, 경전을 인용 증명하였다. 다섯째, 자음과 자의를 추측하여 밝혔다. 여섯째, 名物을 분석하였다. 청대 사람들의 『이야』 연구는 “마치 비 온 뒤의 봄 죽순처럼 많이 등장하여 부문별로 연구해서 각기 전문분야에 정통하였지만, 그러나 그 규모나 범도를 보면 대체로 소진함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sup>14)</sup>

규장각 소장 『이야정의』는 餘姚邵氏家塾本으로, 간행지인 琉璃廠 西門內를 근거로 하여 이와 동일한 중국의 판본과 비교해 보면 金陵文炳齋 劉德文으로 간행자가 나타난다. 즉 北京 琉璃廠 西門內 金陵文炳齋에서 유덕문이라는 사람이 간행한 것으로 이후 한국으로 입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리창은 燕行使 등이 중국을 가서 책을 구매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앞에서 살펴본 발간연도에 의거하면 乾隆 53년(1788)으로, 발간연도 미상인 『이야석문』을 제외하고는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13) 이하는 胡奇光 저, 이재석 역(1997), p.398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14) 齊佩瑢(1984), 訓詁學概論, 中華書局, p.234, 위의 책 p.398에서 재인용.

『이아정의』는 7과 10 두 종류가 있다. 10은 두 부이지만 동일한 판본으로 원문 검색 내에서도 하나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7은 光緒 10 甲申年(1884) 榮縣 蜀南閣에서 간행한 것이고, 10은 5년 후인 光緒 14 戊子年(1888) 上海 鴻文書局에서 간행한 것이다. 손민정의 해제에 의하면 모두 足本<sup>15)</sup>으로 咸豐 6년(1856) 聊城의 楊以增이 重刻한 것인데 완성하지 못하고 죽자 胡珽이 마무리하여 완성한 것이고, 同治 4년(1865) 郝懿行的 손자가 간행한 『郝氏遺書』는 이 楊本을 교감하여 편찬한 것이라 하였다.

위의 14개 『이아』 관련 서적 중 흥미로운 것으로는 5. 『이아』이다. 이는 광박의 주와 육원량의 음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실상은 『이아주』이다. 이 판본은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관계로 그 成書에 대한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나마 서문에서 嘉慶 丁丑年(1817)에 張清選이 『이아』 광박주에 善本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여 발간했다는 기록에 근거하면 최소한 1817년 이후에는 이 책이 존재하였고, 湘西經濟書局에서 光緒 9년(1883)에 발간되었다는 서지사항이 있다. 이에 대해서 竇秀艷 등(2010)에서는 ‘經濟書局’을 ‘經齋書局’의 誤字라고 하면서 이를 고쳐서 언급하였다.<sup>16)</sup> 그렇지만 왜 ‘經齋’로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이 오자라고만 하였다. 그 근거를 알 수 없고, ‘湘西經濟書局’뿐만 아니라 교정하여 제시한 ‘湘西經齋書局’에 대한 정보 또한 찾지 못하였다. 이 점은 의문점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15) 판본상 손실된 부분 없이 내용이 완정하게 갖추어진 서적을 가리키는 版本學 용어이다.

16) 竇秀艷 등(2010), p.198: “여기서의 “湘西經濟書局”은 실제로는 “湘西經齋書局”으로, “齋”자가 기록될 때에 “濟”로 된 것이다. 청(淸) 광서 9년(1883) 湘西經齋書局에서 淸芬閣本 《이아》를 중간한 것으로, 이 판본은 국내에는 보기 힘들어, 판본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 지금 단지 한국 규장각장본으로만 보인다.”(此“湘西經濟書局”實爲“湘西經齋書局”, 誤把“齋”著爲“濟”. 淸光緒九年(1883)湘西經齋書局重刊淸芬閣本《爾雅》, 此本國內罕見, 不知版本情況如何, 今僅見韓國奎章閣藏本.)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야』 관련 판본은 그 발간 시기와 관련 없이 청대 이후, 조선에게 있어서는 말기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규장총목』 總經類에서 『십삼경주소』가 두 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부는 毛鳳苞<sup>17)</sup>汲古閣本이고 하나는 乾隆 內閣藏本이라 하였다. 이는 『이야』에 나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십삼경 내에 존재하는 『이야』를 참조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십삼경』에 『이야』가 속하기 때문에 그 『이야』를 참조했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언급된 『십삼경주소』는 결국 조선 후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明本 또한 조선 초기 世宗이 참조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

#### 4. 결론

지금까지 규장각 소장 『이야』 관련 서적의 현황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이야』 관련 서적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규장각에서는 총 14종의 『이야』 관련 서적이 검색되었다. 그 중 3종류가 동일한 제목의 책이고, 하나는 내용이 동일한 것이었다. 『이야』의 成書 순서를 정리함에 있어 광박의 『이야주』가 가장 앞서겠지만 『이야석문』이 포함되거나 『이야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판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후자들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을 앞에 두고서 선후 관계를 밝혔다. 입수 및 유통 내역에서는 발간 연도와 印章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였을 때에는 『이야정의』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대부분 조선 高宗 전후로 입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판본 비교

---

17) 毛鳳苞는 앞서 언급한 毛晉의 원래 성명이다.

및 특징 검토에서는 『이아주소』, 『이아음의』, 『이아정의』, 『이아의소』 위주로 하였고, 누락된 해제를 지적하고 보충하였으며, 『이아주』에서의 논점 등을 함께 언급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아』는 조선 말기에 집중되었고, 발간 연도와 인장 등을 통해 1800년대 후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조선 초중기에 보았던 『이아』는 어떠한 판본을 근거로 하였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이에 대한 대답은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원전자료〉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 검색 시스템 (<https://kyudb.snu.ac.kr/> 접속일: 2021년 1월 11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809023\\_003](http://sillok.history.go.kr/id/kza_13809023_003) 접속일: 2021년 1월 11일)

##### 〈연구논저〉

胡奇光 저, 이재석 역(1997), 『중국소학사』, 동문선.

신원철(2014), 『《경전석사》에 나타난 인성구의 연구』, 역락.

趙林鳳(2014), 『中國近代憲法第一人: 汪榮寶』, 新銳文創.

노용필(2010), 「한국 고대 문자학과 훈고학의 발달」, 《진단학보》 110호, pp.1-30

寶秀艷 등(2010), “韓國現存《爾雅》注版本評說”, 《東亞文學與文化研究》 2010年, pp.193-199

黃卓明(2016), “朝鮮時代《爾雅》文獻調查研究”, 《殷都學刊》 2016年3期, pp.45-49

##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Features of Books Related to 『Erh-ya』 in Kyujanggak

Shin, Wonchul\*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of the editions of 『Erh-ya(爾雅)』 in Kyujanggak(奎章閣), and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ditions after examining their acquisition and distribution history. First, the current status of the editions related to 『Erh-ya』 in Kyujanggak, 14 types of 『Erh-ya』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ublication year and seal,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oldest among them is 『Erh-ya Zhengyi(爾雅正義)』. Most of the acquisition period of 『Erh-ya』 is before and after King Gojong(高宗). Comparisons and features of these editions are examined focusing on 『Erh-ya Zhushu(爾雅註疏)』, 『Erh-ya Yinyi(爾雅音義)』, 『Erh-ya Zhengyi』, 『Erh-ya Yishu(爾雅義疏)』, and the missing abstract is compensated. Through this research, it can be seen that 『Erh-ya』 in Kyujanggak was concentrated in the late Chosun period, that is in the late 19th century.

### Key words

Kyujanggak(奎章閣), 『Erh-ya(爾雅)』, 『Erh-ya Zhushu(爾雅註疏)』, 『Erh-ya Yinyi(爾雅音義)』, 『Erh-ya Zhengyi(爾雅正義)』, 『Erh-ya Yishu(爾雅義疏)』, King Gojong(高宗)

논문접수일: 2020. 12. 31, 심사완료일: 2021. 1. 20, 게재확정일: 2021. 2. 3

\* 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Theology HK+ Project HK assistant professor/  
E-mail: chimsky@paran.com